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지 선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22.0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1절 중앙정부 정착지원제도 5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정착지원제도 8

1. 연구모형 25
2. 이론적 배경 27

1. 설문결과분석	30
2. 다차원분석	38
3. 이사유무에 따른 분석	43
4.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따른 거주만족도 분석	47

1. 연구의 결론	49
2.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5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함
- 2021년 9월 기준으로 33,800명이 입국하였고, 남성은 9,464명, 여성은 24,336명으로 여성비율이 72.0%로 더 많이 입국하였음
-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500명 내외로 입국하였으나,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북한 국경 봉쇄로 인하여 229명, 2021년 9월 현재 48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표 1〉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입국현황

(단위 : 명)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합계(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여성비율	12.2%	45.8%	55.3%	63.1%	67.0%	69.4%	74.6%	77.6%	78.3%	77.3%	75.4%	70.6%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9월 (잠정)	합계	
남(명)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29	9,464	
여(명)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19	24,336	
합계(명)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48	33,800	
여성비율	73.1%	75.6%	78.2%	80.3%	78.7%	83.3%	85.2%	80.7%	68.6%	39.6%	72.0%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주요사업통계.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3,800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생활은 일반국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 2019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실태조사(대상자 28,652명 중 표본 3,000명) 결과, 응답자 중 74.2%가 ‘남한생활에 만족함’ 이라고 답변함
-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임금과 평균 근속기간은 모두 증가하여 임금근로자의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주요 정착지표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나, 일반 국민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표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주요지표

(단위 : %, 명)

구분	2016년 탈북민	2017년 탈북민	2018년 탈북민	2019년 탈북민	일반국민
경제활동 참가율	57.9	61.2	64.8	62.1	63.3('19)
고용률	55.0	56.9	60.4	58.2	61.4('19)
실업률	5.1	7.0	6.9	6.3	3.0('19)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162.9	178.7	189.9	204.7	264.3('19)
생계급여 수급률	24.4	24.4	23.8	23.8	3.4('19)

자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20),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2016~2019)

-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증가하고 정착 지표가 일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제대로 정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 북한이탈주민의 삶은 지표에서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사례들을 살펴보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많고, 특히 남한에서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북한이탈주민 중 ‘사인(死因) 미상’ 으로 처리된 경우가 20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과 2021년에는 90명으로 증가하였음¹⁾
- 북한이탈주민의 사인 미상 죽음이 최근 늘어난 이유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코로나 여파로 우울증이 심해진 이들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 이라고 함
- 또한 탈북민들은 복지기관 직원이나 매주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과 주로 외부 교류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혼자 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졌기 때문으로 봄

1) 조선일보, 2021. 11.27. 정부 무관심속에, 탈북민 고독사 4배 급증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1/27/SER533YWCJDEBHPPIEHWIRN6P4/

□ 북한이탈주민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있지만,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을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임

- 위의 기사에서 남북하나재단 관계자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지역별 하나센터가 탈북민 생활을 살피기는 하지만, 탈북 초기 인원을 제외한 기존 탈북민에 대한 정보는 통일부로부터 제대로 받기 어렵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탈북민 네트워크를 이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게 사실” 이라고 얘기하고 있음
- 문제는 관리이던 복지이던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원 퇴소 이후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도 있지만 고독사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국경을 넘는 선택도 하고 있음

- 2022년 새해부터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 김 모 씨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음
- BBC 뉴스는 기사를 통해 10년간 최소 30명이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함²⁾

□ 탈북민이 월북했다는 뉴스에는 경찰의 신변보호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많지만 이 뉴스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얘기는 없음

-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관리에 있어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위해 통일부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정착지 선정과 지역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2) BBC News 코리아, 2022. 01. 04. 월북: 10년간 최소 30명 월북... 탈북민들 국경 두 번 넘는 이유는, <https://www.bbc.com/korean/news-59856610>

2. 연구의 목적

- 북한이탈주민 남한정착 지원은 입국 후 초기 정착지원은 통일부가 담당하지만, 하나원 퇴소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되면서 개별 지방자치단체 역량과 관심도에 따라서 정책적 지원에 차이가 발생함에 주목함
 - 중앙정부(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간은 짧은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거주공간으로서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지 선정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착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비공식적 정보, 선호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역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국내 정착 후 거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특성을 분석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이동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정보를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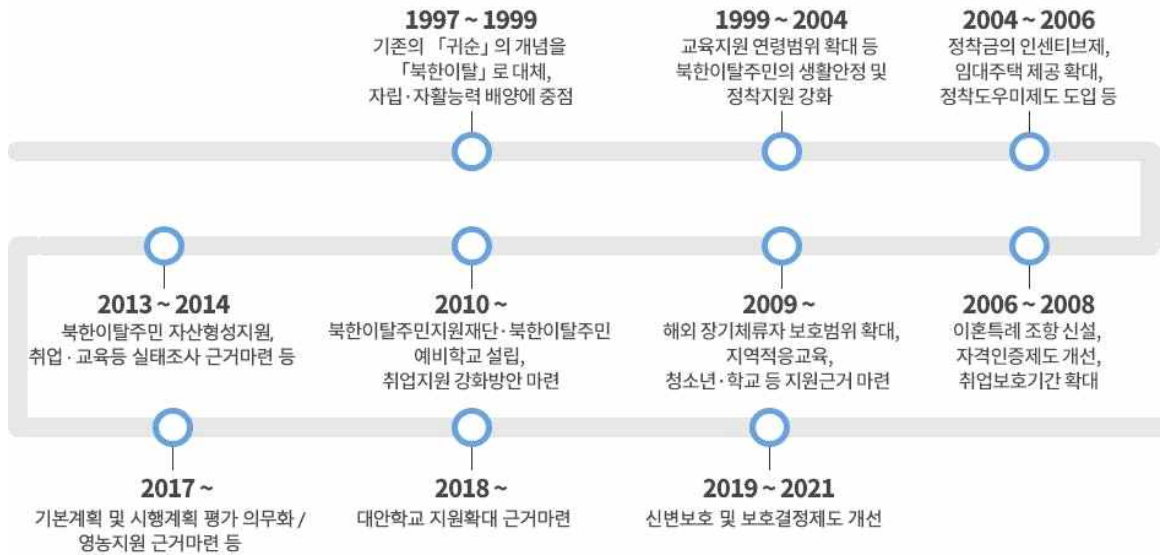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정책, 원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신뢰가 북한이탈주민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제2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제1절 중앙정부 정착지원제도

-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음

〈그림 1〉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변천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history/>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이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사업을 뜻함

-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제4조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3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시설보호단계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가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지원시설(이하 ‘하나원’)에 입소하여 12주(392시간)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받게되며, 가족관계 등록, 주거알선 등 정착준비를 함

-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 있는 동안 거주 희망지역을 신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해당지역의 임대주택을 배정 받고, 1인 세대 기준 약 1,3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받음³⁾
 - 거주지 최초 전입 시에는 임대주택 보증금만 지급하고 5년 이후에 주거지원금 중 임대주택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함
- 거주지보호단계로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친 북한이탈주민은 1인 세대 기준 약 7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 중 400만원은 초기지급금으로 하나원 퇴소 시 지급되며, 나머지 300만원은 거주지 전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됨
 - 해당 거주지로 전입한 후에는 지역적응센터에서 2주간(60시간) 지역적응교육을 받음
 - 2주간 기초교육을 수료한 뒤에는 심리상담, 취업상담 등의 기타 적응지원을 받음
-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제5조에 따른 거주지보호기간은 5년이고, 이 기간 동안 정착금 지급, 각종 취업지원 장려금, 사회보장 특례, 교육지원을 비롯하여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역적응센터 등을 통해 취업, 사회적응, 정서안정, 교육, 의료, 법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단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받을 수 있음
- 다음의 그림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정을 국내 입국 전과 후로 나누어서 정리한 내용임
 - 먼저 국내 입국 전에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단계에서 ①보호요청 시 관계 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②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③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절차를 따름
 - ‘국내 입국’ 단계에서 ① 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 ② 보호결정, ③ 하나원 정착준비를 함
 - ‘거주지 전입’ 단계에서 ① 거주지 보호(5년), ② 민간 참여 등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⁴⁾을 중심으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됨

3) 2~4인 세대는 1,700만원, 5인 세대 이상은 2,000만원~

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10년 9월 27일에 설립되었고, 2011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부터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대외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과정



자료 : 통일백서(2020), p.146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정착지원제도

1. 지방정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1) 추진체계

-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현지적응을 위한 지원은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이시형, 2008)
 - 중앙정부가 직접 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간은 매우 짧은 반면에, 지방은 이들의 평생 거주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임
 - 북한이탈주민들에 과한 문제는 전국의 각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기본 정책임
 -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가 탈북민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 지자체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 지역 내 민간단체 및 지역거주 탈북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차원의 정책협의체(2020년 기준 전국 119개 지역협의회 운영중)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담당 부서는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전담부서가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4개이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다른 기능과 혼재되어 존재하고 있음
 - 경기도와 강원도는 남북접경지역으로써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직 체계이며, 인천광역시는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인데 반해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선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남북협력 담당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음

〈표 3〉 광역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 담당부서

북한이탈주민 전문부서	부산광역시-남북협력기획단,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관실,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력과, 경기도-평화기반조성과, 강원도-남북교류과
일반 행정부서	서울특별시-자치행정과, 대구광역시-자치행정과, 대전광역시-가족돌봄과, 울산광역시-시민소통협력과, 세종특별자치시-여성가족과, 충청북도-자치행정과, 충청남도-자치행정과, 전라북도-자치행정과, 전라남도-자치분권과, 경상북도-자치행정과, 경상남도-대외협력담당관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행정과

자료 : 2020 북한이탈주민 실무편람 p146~154.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명칭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자치행정과, 복지담당부서, 주민생활부서, 총무과 등 일반행정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남동구청의 경우는 남동다문화사업소, 연천군은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전문부서에서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파주시(평화협력과)와 고양시(평화미래정책과) 두 곳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 지원 추진체계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역협의회로 전국적으로 119개소가 운영중임

〈표 4〉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자치단체	예산 규모	연번	자치단체	예산 규모	연번	자치단체	예산 규모
1	시 청	12,000	41	서 구	2,000	81	동해시	1,500
2	성동구	2,000	42	시 청	10,000	82	도 청	3,300
3	동대문구	5,000	43	서 구	4,000	83	청주시	3,500
4	중랑구	2,500	44	북 구	5,000	84	충주시	1,500
5	성북구	2,000	45	광산구	6,000	85	제천시	1,200
6	강북구	2,500	46	시 청	8,000	86	증평군	1,000
7	노원구	12,000	47	동 구	700	87	진천군	1,200
8	은평구	1,500	48	서 구	1,000	88	괴산군	1,000
9	서대문구	1,500	49	유성구	700	89	음성군	1,800
10	마포구	1,500	50	대덕구	600	90	단양군	1,000
11	양천구	11,000	51	시 청	4,000	91	도 청	7,000
12	강서구	8,000	52	남 구	2,500	92	천안시	6,000
13	구로구	2,500	53	동 구	4,500	93	아산시	6,000
14	금천구	2,000	54	북 구	4,500	94	서산시	6,000
15	영등포구	1,500	55	울주군	2,500	95	당진시	5,000
16	동작구	4,500	56	도 청	23,000	96	도 청	7,000
17	관악구	4,000	57	수원시	5,200	97	전주시	6,000
18	서초구	1,500	58	고양시	4,000	98	군산시	4,000
19	강남구	5,000	59	성남시	3,700	99	익산시	4,000
20	송파구	6,000	60	용인시	4,700	100	정읍시	2,000
21	강동구	2,000	61	부천시	4,500	101	남원시	2,000
22	도봉구	1,500	62	안산시	4,400	102	도 청	6,000
23	시 청	14,000	63	남양주시	2,400	103	목포시	6,000
24	남 구	주1)	64	안양시	1,600	104	여수시	7,000
25	북 구	3,500	65	화성시	7,100	105	순천시	4,000
26	해운대구	5,000	66	평택시	5,500	106	나주시	1,000
27	사하구	5,000	67	의정부시	3,200	107	광양시	2,000
28	금정구	3,500	68	시흥시	2,800	108	무안군	2,000
29	강서구	5,000	69	파주시	3,000	109	도 청	5,000
30	기장군	5,000	70	김포시	4,900	110	포항시	3,500
31	시 청	11,500	71	광명시	3,300	111	구미시	4,000
32	동 구	2,400	72	광주시	1,500	112	영주시	1,500
33	수성구	2,400	73	군포시	3,100	113	경산시	3,500
34	달서구	3,000	74	오산시	2,800	114	도 청	5,500
35	달성군	2,700	75	안성시	2,100	115	창원시	4,500
36	시 청	14,000	76	포천시	2,200	116	사천시	1,500
37	연수구	2,000	77	하남시	주2)	117	김해시	4,500
38	남동구	7,000	78	도 청	14,000	118	양산시	3,500
39	부평구	2,000	79	춘천시	1,000	119	제주 도청	7,500
40	계양구	2,000	80	원주시	7,500			

자료 : 2020 북한이탈주민 실무편람

주1 : 북한이탈주민 20인 미만 미배정

주2 : '20년 5월 설립 보고

□ 설립목적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중복지원 방지

□ 설립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2조의2(지역협의회 설치·운영)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 구성

- 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
- 위원 : 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 종교·민간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지역 거주 탈북민 등
 - 설립권고기준 : 북한이탈주민 100인 이상 거주하는 지자체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설립 권고

□ 지역협의회 활동내용

-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 후, 운영실적을 통일부에 제출하고, 회의결과 및 운영실적을 공유하여 지자체의 탈북민 정착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매개체로 활용
- 지역협의회에서 협의된 해당 지역 특화사업 수행, 지역 내 적응기반 강화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 할 수 있는 사업 수행 등
- 지역협의회의 기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사업
2.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사업
3.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법률지원 사업
4.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5. 지역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지역특성을 반영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기반 강화 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지원을 위한 핵심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비판받고 있음

- 이기영·김선화(2008)은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통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대체로 지역협의회 소속기관중 하나인 지역복지관을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외형적으로는 관 주도 민간참여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측면에서는 민간주도, 관 협조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

- 이는 지역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실행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지역협의회
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실행조직을 가져야 함
- 임정빈(2012)은 실무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분담과 잦은 보직이동으로 지역협의회
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그리고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
- 지역협의회가 지역특성상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 점
-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며,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관리가 어려워 북한이탈주민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평가

- 북한이탈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배치를 계기
로 그 지역의 관할 주민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탈주민이 그 지역 주민들과의 사회적 통합의 과정으로서 ‘시민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임
 - 임정빈(2012)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거주에 대한 이해부족, 북한이탈주민들과 지역
기업 및 시민단체 연계 프로그램의 부족, 지역정착을 위한 특별교육이나 직업교육의
미흡 등과 함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이시형(2008)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
갈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추진 환경이 미비하고,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된 정책사항
을 집행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제도는 지속
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제도개선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운영과정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함
 - 김동성 외(2014)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가 주도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민간이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협소

2. 지방정부 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1)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선도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조례, 전담조직 및 예산 등을 마련
 - 경기도는 2008년 12월 30일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기도는 2008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이전 안전행정실 남북협력담당관)에 주무부서를 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을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정착지원팀에서 담당
 - 경기도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계획 수립, 하나센터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돌봄상담센터 운영, 취업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
 -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과 함께 정무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화부지사 산하에 평화협력국과 소통협치국을 설치, 평화협력국에 평화협력과, 평화기반조성과, DMZ정책과, 경기국제평화센터가 존재하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평화기반조성과에서 담당

①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 경기도 소재 취업전문기관 및 고용노동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여 훈련비와 훈련수당 등 지원하고 수료자에 대한 취업연계 추진

- 북한이탈주민을 공직사회에 적극 편입시켜 지역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통일대비 인적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채용 확대
 -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무에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거주자 수에 따라 시·군별 채용인원 할당 및 채용 독려(시·군별로 북한이탈주민 100명당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1명 이상 채용 목표)

- 북한이탈주민 종합취업지원 안심시스템 유지, 취업박람회, 찾아가는 취업컨설팅 및 잡투어(job tour), 취업 SOS반 등의 취업지원 실시

- 북한이탈주민 종합취업지원 안심시스템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교육훈련, 취업, 생활고충 등에 관한 데이터 축적 및 관리를 위해 개발한 시스템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효율성 증진
- 권역별로 하나센터,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취업컨설팅 및 잡투어를 개최하여 구인자와 구직자의 매칭률 제고

□ 매년 다양한 취업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취업능력향상

〈표 5〉 2020년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과정

운영과정	교육기관명	지역명	기간	관련자격	인원
보육교사 양성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의정부시	1년	- 보육교사 3급	4명
경리사무 실무자 양성	중소기업인재개발원	수원시	3개월	- ITQ정보기술자격 ·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42명 (기관별)
	주)한양능력개발원	고양시	3개월	-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	21명
돌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의왕요양보호사교육원	의왕시	2개월	기본자격 : 요양보호사 1급 추가 : 산후조리사 아이돌보미 장애돌봄서비스	80명 (각 기관별 20명)
	(주)동부케어	화성시			
	단대요양보호사교육원	성남시			
	집으로요양보호사교육원	의정부시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상담센터 공지사항,
<https://www.gg.go.kr/bbs/board.do?bsidx=622&menuId=1638#page=1>

-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만19세이상 남·여를 대상으로 학력제한 없이 모집하여 관련분야 취업 지원
- 교육비, 교재비 등 전액 무료(도비 지원) 및 월 훈련수당 별도 지급

②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 남북한 주민 결연 문화·친목도모 행사 등을 통해 사회인식 개선 및 주민통합 사업 추진
 - ‘통일가족 만들기’ 로 남한가정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간 결연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사회적응 유도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우리문화 알아가기 한마당’ 을 통해 남북한 청소년들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호 편견 해소와 문화 이해의 기회 마련
 - 안성시와 의정부시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사회 행복나누기’ 개최 등

③ 북한이탈주민 상담서비스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취업, 직업훈련, 법률, 심리, 의료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

- 상담방법 : 방문상담 및 현장방문상담 진행
- 위치 : 경기도청 남부청사 언제나 민원실내 201호 /
경기도 의정부 북부청사 민원실 내 314호
- 상담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 상담요일 및 시간 : 월~금 09:00 ~18:00
- 현장방문 상담 : 주중에 상담센터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신상노출 우려자, 노약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서비스를 제공. 본인이 상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돌봄상담센터에 예약하고 상담을 요청하면 날짜와 시간에 맞춰 현장방문 상담진행

(2)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 서울시는 201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 서울시는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협력추진단’을 구성하여 남북협력담당관 산하에 남북협력정책팀, 사회문화교류팀, 통일문화조성팀을 두고, 개발협력담당관 산하에 개발협력총괄팀, 개발사업팀, 경제협력지원팀, 서울평화포럼팀을 두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정책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대책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5대 과제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 환영합니다! 이제 당신도 서울시민입니다 - 희망서울 시민환영 맞이 개최, 서울시민 One-stop전입처리, 탈북민 정착매뉴얼 제작배포,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 둘째 : 보듬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 열린치과 운영,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마음돌봄(정신보건) 프로그램 운영
- 셋째 : 돕겠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 공공인력 채용확대 모범적 추진, 찾아가는 직장 '힐링캠프' 운영
- 넷째 : 함께 걸겠습니다! 이해하고 화합하고 - 남북한 함께알기 교육, 남한가족체험 문화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정착지원자+서울시민상 등 수여
- 다섯째 : 기울이겠습니다! 현실적인 지원을 위하여 - 신규전입자 기초생활물품 지원, 탈북민 지원 콘텐츠 구축, 기초생활수급자 조기책정 등 제도개선

<그림 3>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종합대책 포스터



자료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홈페이지.

① 최초 전입자 지원과 지역사회 소속감 강화

- 배정받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민원 원스톱처리를 통해 하나센터, 구청, SH공사 등 여러기관 방문없이 전입민원 처리와 함께 생활정보와 복지혜택 등 안내
- 민간단체, 기업체 등과 연계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가구에 가전, 가구, 의류 등 지원
- 자치구 보건소를 활용한 의료상담 및 내방·내원 진료, 전문치료 후원병원 연계진료, 개인건강카드 관리 사업 추진

②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

□ 공공과 민간이 참여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취업, 교육 등 종합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서울형 북한이탈주민 모델 구축

· ‘탈북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성인 평생학습강과’ 운영을 통해 탈북과정에서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가정불화 등을 겪고 있는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찰을 지속하여 문제해결과 사회적응 능력 향상 도모

③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에 ‘현장소통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콘텐츠’ 설치·운영을 통해 현실적 애로를 경청하고 사각지대 해소 노력

· 서울 내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인 양천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 ‘현장소통실’ 시범 실시 후 타 지역으로 확대 운영

·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사항에 대하여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협의

(3)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 충청남도는 「2018년 통일기반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 중임

① 북한이탈주민 민-관 협업 체계 마련

□ 북한이탈주민 지역(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 운영개소 : 도, 천안, 아산, 서산 등 거주민 100명이상 도시

-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2조의 2

- 구성 : 보호담당관, 하나센터, 민간단체, 교육기관 등

- 목적 :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

- 내용 : 각 시별로 7~8백 등 총 32백만원 지원, 연 2회 협의회 개최

〈표 6〉 충청남도 지역협의회 예산 지원 현황(2017년)

(단위 : 명, 천원)

구분	거주자 수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계	960	32,000	28,000		4,000	
도		7,000	7,000		-	
천안시	393	7,500	7,500		-	
아산시	400	11,500	7,500		4,000	
서산시	167	6,000	6,000		-	

자료 : 충청남도(2018).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 수립연구 p.60

□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지원

- 근거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조례 제12조
- 목적 : 충청남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지원
- 예산 : 총 147백만원 지원(도비 39, 시·군비 108)

〈표 7〉 2018년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당진	부여	홍성
합계	147	34	10	10	43	20	10	10	10
도비	39	8	3	3	10	6	3	3	3
시·군비	108	26	7	7	33	14	7	7	7

자료 : 충청남도(2018).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 수립연구 p.60

- 대상 : 북한이탈주민 30인 이상 거주하는 8개 시·군(천안, 보령, 보령, 아산, 서산, 당진, 부여, 홍성)
- 방법 : 시장·군수 직접시행 또는 위탁·보조사업으로 추진
- 내용 : (필수사업) 북한이탈주민 멘토링 운영,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협약, 긴급 구호비 지원(신규), 예방접종비 지원(신규)
(선택사업) 동아리 모임 지원, 문화적응 프로그램 등 지역 특화 사업 등

② 지역사회 인식개선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 목적 : 지역 정착 과정에서 겪는 탈북민간 문화충돌에 대한 토크쇼 개최를 통해 남-북 소통의 장을 마련
- 내용 및 방법 : 도민 인식개선 교육 및 토크쇼, 인식개선 포럼 등을 통일관련 기관, 단체 및 북한이탈주민 실무협의회와 연계 추진

□ ‘북한이탈주민 이해’ 홍보 및 체험 사업

- 목적 및 내용: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일반인 대상 북한음식 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남-북 화합의 장을 마련
- 방법 : 공모사업으로 민간과 연계하여 추진

③ 경제적 자립지원

□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 도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기 제고를 위해 채용목표를 총 20명으로 하고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
-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군 협의체 회의 안건 상정 및 시·군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채용 실적은 2018년부터 시·군의 위임 평가에 반영할 예정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협약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정착기반을 조성
- 북한이탈주민 도비 지원사업의 필수 사업으로 정하고, 도-시·군(지원단체)-기업체 등과 협업하여 효과를 제고할 계획

④ 지역사회 적응지원

□ 찾아가는 가족통합 서비스

- 북한이탈주민 취약가정을 발굴하여 배움지도사 선발 및 가정교육 실시
-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단체 선정) 후 18가정(6~13세 아동을 둔 북한이탈주민 취약가정) 지원

□ 「행복한 동행」 멘토링

- 목적 : 북한이탈주민-도민이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지역정보 제공 및 일자리 안내 등 지역정착의 도우미 역할 수행
- 대상 : 전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

- 방법 : 북한이탈주민 도비지원사업의 필수 사업으로 연계 추진, 시·군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 활용

□ 북한이탈주민 우리 문화 체험

- 이북5도 충남사무소와 연계, 초기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 멘토 및 직장인 취업멘토링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⑤ 건강관리 사업

□ 예방접종 지원 사업

- 목적 : 생애 단계별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하여 예방접종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에 기여
- 대상 : 지역전입 3년 이내 북한이탈주민 100명(연간)
- 내용 : 12세이상 북한이탈주민(제3국출생 자녀 포함)
 - * 12세미만을 국가 예방접종 실시
- 북한이탈주민 도비지원사업의 필수 사업으로 연계 추진

□ 정신건강 관리 사업

-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회복과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지역전입 3년 이내 북한이탈주민 100명(연간)
- 내용 : 외상 후 스트레스 개선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상담) 및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 방법 : 충남도 광역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국립공주대학병원) 위탁

(4)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① 경제활동 지원 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소기업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체크하고, 결원 발생 시 우선 채용과 신규채용인원 중 20~30%를 북한 이탈주민에게 할당할 것을 독려하고 있음

② 청소년 지원사업

- 목적 : 인천시 교육청 주관으로 탈북학생의 기초학습능력 및 학교와 사회 적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

내용 : 탈북학생 교육 우수 실천 사례 발굴 및 확산을 목적으로 탈북학생 중심학교 운영지원, 탈북학생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연수를 지원하며 탈북학생의 심리치유 지원과 북한이탈주민학력심의위원회를 운영

방법 : 인천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학교생활과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 운영

- 북한이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수강 지원
- 남동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과 일반 대학생 간 1:1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기초 학습 지도 및 진로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방학을 통해 한국문화 체험 캠프도 운영하고 있음
- 남동구는 비재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신규 입국, 학업포기 청소년의 학습지도 및 검정고시 준비,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이외에도 재학, 비재학생을 포함하여 아동, 청소년의 심리안정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활동프로그램 연계 및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음

③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

□ 목적 :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멘토링을 운영하여 관내 공무원과 북한이탈주민 간 멘토-멘티 관계 형성을 통해 행정기관 지원 사업 및 기타 생활지식 안내

□ 내용 : 북한이탈주민 80명을 대상으로 인천시내 유적지 및 명소를 답사하는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신규전입자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원함

- 남동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민·관 쌍방향 소식지 ‘반갑습니다’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표준어, 맞춤법, 유행어, 남·북한 말 차이 등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연수구에서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가정방문 상담 및 우리문화 알리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정주도우미단을 조직하여 운영
- 계양구에서는 신규전입자를 대상으로 초기정착 지원 물품을 지원함

④ 기타

□ 북한이탈주민 지원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인천시, 국정원 인천지부, 인천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간담회를 통해 기관별 추진사업 공유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인재개발원 교육 프로그램 및 시민단체 워크숍에 북한이탈주민 출신 강사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

□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 인천시 거주 3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00명
- 인천하나센터 신청접수 후 협약기관인 인천의료원 예약상담 및 검진 후 인천시에서

예산지원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주민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5)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① 기본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 거주지 최초 전입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 보장
- 근로무능력만 구성된 가구 : 5년
-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 : 3년

의료급여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주거지원

- 사회편입시 임대주택 알선(LH공사 등)
-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자격 부여

② 정착지원사업

정착도우미 사업(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위탁사업)

- 내용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편입 후 초기 1년간 1세대당 1~2명이 정착생활을 도와 안정적인 조기 정착 유도
- 역할 : 신병인수,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 등 관공서 업무, 은행, 대중교통 이용 안내, 취업안내, 지원단체 연계 등

지역적응센터(부산하나센터) 운영

- 역할 : 초기 집중 교육, 지역 적응 지원, 지역주민 교류 지원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제도 운영
 - 운영내용 : 거주지 편입 후 심리적 위축 등으로 부적응사례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문상담사 제도 운영
 - 배치장소 : 부산하나센터 내

③ 지역특화 사업

□ 북한이탈주민 「한지붕 한마음 사업」 추진

- 부산 시민의 가정에서 숙박 체험(1박2일)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빠른 적응 지원

□ 「소통하는 통일 강연 사업」 운영

- 북한이탈주민 강사가 초·중·고·대학교 및 기업체 등에 방문하여 강연 활동을 통한 주민 화합

□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 개인의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한마음 생활 정보지」 제작 배부

- 행정, 건강, 생활, 취업·직업훈련 및 관심 정보 등 제공으로 지역 사회와 소통 증진

□ 「자신감 쑥쑥, 표준어 교실」 운영

- 말씨, 억양 차이로 인한 취업 및 사회 적응 애로를 해소하여 생활 적응 지원

□ 공공서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 견학」

- 부산의 대표적 공공기관인 부산 시청, 시의회 견학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 지원

□ 북한이탈주민 「부산 시티 투어 체험」 지원

- 부산의 지리, 교통, 명소 등 도시 전반적 이해를 통한 지역사회 적응 지원

(6)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광주하나센터) 운영 지원

- 운영단체 : (사)아시아맑음공동체

- 사업대상 : 신규전입 및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사업비 : 금151,000천원(국비)

- 사업내용

· 거주지 전입 후 8일(50시간) 교육과 지역적응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 기반 조성

·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의 종합적인 자활·자립지원을 위한 정착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 사업비 : 금10,000천원(국비)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한 사업 추진

- 연 2회(상·하반기) 정기회의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물품지원, 김장나눔 행사 등 추진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지원

- 운영단체 : 송광한가족상담센터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북한이탈여성
- 사업비 : 금25,400천원(국비)
- 사업목적 : 북한이탈여성이 탈북 후 겪는 각종 폭력의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한 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제공
- 사업내용 : 센터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 상담서비스 및 원예치료 등의 프로그램 진행

□ 북한이탈주민 자활프로그램 운영(공모) 지원

- 사업대상 :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비 : 금18,0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공모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상담, 취업, 교육 및 지역 문화 체험활동 등 자립·자활프로그램 추진 단체 선정 지원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교육 희망 북한이탈주민
- 사업비 : 금20,0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 지원
- 북한이탈주민 남도음식만들기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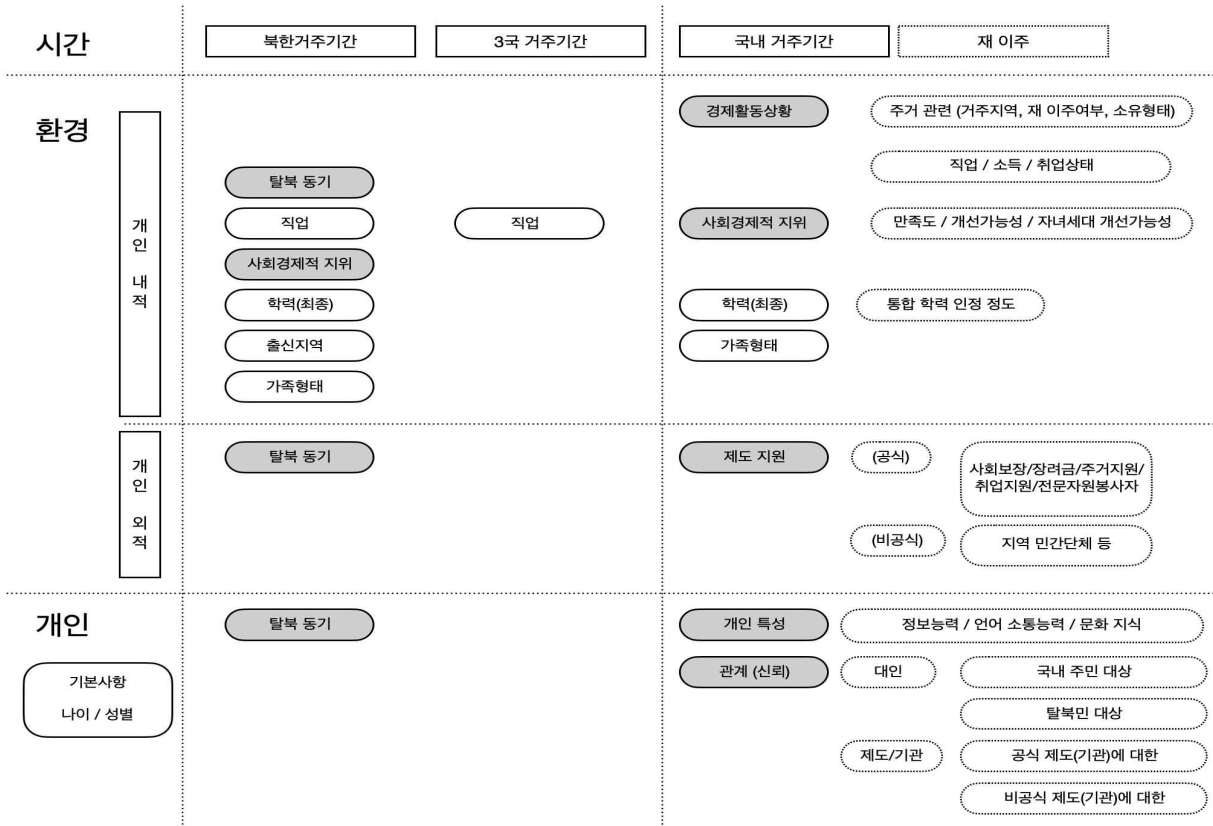
제3장 연구의 설계

1. 연구모형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

-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3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시간적 차원으로 북한에서의 거주기간, 제 3국에서의 거주기간,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은 재이주를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환경적 차원으로, 이는 또다시 개인을 기준으로 내적인 영역, 외적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음. 개인 내적인 영역은 개인의 심리, 의도, 개인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들(탈북동기,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경제활동상황, 학력, 가족형태)로 설명될 수 있으며, 개인 외적인 영역은 주로 제도적 지원 요인들로 설명됨
- 셋째, 순수하게 개인의 자발적인 심리적 상태에서 유발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인 특성들(정보획득능력, 언어소통능력, 문화 지식, 신뢰)로 구분됨
- 이러한 구분은 각 영역별로 구성요소들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이후 국내정착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외부자극요인들이 어떠한 심리적, 행태적 변화를 통해 국내 정착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영향 요인들의 체계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림 4〉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 영향요인의 구조화



2. 이론적 배경

○ 개인 내적 환경 차원

- 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인 중 탈북의 동기를 들 수 있음. 최근 입국하는 탈북민들의 탈
- (탈북동기) 북한이탈주민의 개인 내북 동기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성분 차별, 인권침해 등의 이유가 많았음. 그러나 최근에는 극심한 식량난 등의 경제적 요인, 이미 탈북한 가족이 북한에 남은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 단순한 생존을 넘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이주 등 탈북동기의 다양화 정도가 증가하는 추세임(노길수, 2020). 따라서 탈북동기와 입국 목적이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탈북민이 국내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있어 어떤 개인적 동기가 존재하였는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판단됨.
- (사회경제적 지위)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느끼는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은 탈북동기와도 일부 관련이 있으며, 남한 정착과정에서 그 인식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향으로의 변화가 정착생활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주요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임. 예를 들어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지위 인식이 부정적이며 탈북동기가 자녀세대의 교육기회 증진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 정착과정에서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지위 인식이 낮더라도 정착생활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음. 이렇듯 정착지 선정에 있어 전반적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각각이 복잡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다만 사회경제적지위 인식은 이러한 많은 요소들 각각과 일정부분 연관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분석 시 다른 변수들의 측정치와의 상호 비교 혹은 매트릭스 분석을 위한 기준변수로서 활용될 수 있음.

○ 개인 외적 환경 차원

- (제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착지원제도를 들 수 있음. 이는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행 주체를 기준으로 할 때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관으로 나뉘볼 수 있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식적 제도 측면에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혜택, 주거지원제도(하나원 퇴소 후 실거주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을 알선), 취업지원(직업훈련 기회 제공, 사업장 알선), 초기 정착금, 장려금 제도 등을 들 수 있음. 또한, 지역사회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적응센터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 요구와 지역 형편에 맞는 정착지원서비스를 실시함. 지역사회차원에서 구성되는 정책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 지역 내 민간단체 및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민간, 비공식적 제도 측면에서 보면, 지역 민간단체, 종교단체, 의료기관, 자선단체, 지역복지관, 자원봉사자 등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와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개인 차원

- (정착 장애요인: 문화 불편, 의사소통 불편)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정착과정에 있어 순수한 개인적 차원의 특성들이 사회적응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됨. 이는 주로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대표적인데,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이질감, 민주주의 제도와 연관된 다양한 제도문화적 차이, 관습, 언어사용방식 등에서 비롯된 심리적 갈등으로 '잘 정착하기 못할 것 같은 불안감'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이주호, 배정환, 2011). 이러한 요소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정착장애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크게 구분하여 문화적인 이질성, 언어소통방식의 이질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보획득) 상기 언급된 문화 차이, 언어소통 이질성으로 인한 정착 어려움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로서 정보를 들 수 있음. 국내 정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 혹은 획득가능성 및 획득노력 정도는 북한이탈주민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비롯되는 어려움이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을 것임. 조민희(2019)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탈북후 입국자들은 남한 국민들과의 소통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그리고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데 “어디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자체를 모르거나(25%) 주변에 정보를 제공받을만한 사람이 없다(19.2%), 혹은 정보를 얻기 위한 기술과 능력이 부족하다(14.7%)”라는 응답이 조사되는 것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자신들의 정보입수 능력이나 주변 정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조용완, 2006)을 알 수 있음. 즉, 남한사람들에 비해 정보입수 능력에서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정보행태는 매우 소극적으로 나타나, 남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정보빈곤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결국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히 입수하여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신뢰) 정착과정에서 개인차원의 변수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문화, 언어, 정보 등 개인의 순수한 능력이나 심리적인 요소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개인 간 '관계'라는 것에서 발생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음. 즉, 신뢰라는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인 간 신뢰, 제도 및 기관에 대한 신뢰로 나뉘볼 수 있음.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는 특유점으로 임정빈(2012)은 그들이 북한 사회에서 몸에 배인 가치관으로 인해 공적 생활에서는

공식규범에 순종하지만, 사적 생활에서는 자기 방식 특유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 거주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경향 있다고 보았음. 다만 이는 한국사회에서의 차별과 편견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음. 결국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역 정착과정에 있어 공적, 사적 신뢰 정도의 상대성이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일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제4장 연구의 분석결과

1. 설문결과 분석

□ 기초통계분석

○ 응답자 특성

- 2021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지 선정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 조사”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 55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본 조사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1년 9월 통일부 잠정치 기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33,800명 중 여성이 24,336명(72%)으로 전체 성비를 고려할 때 표본 수집에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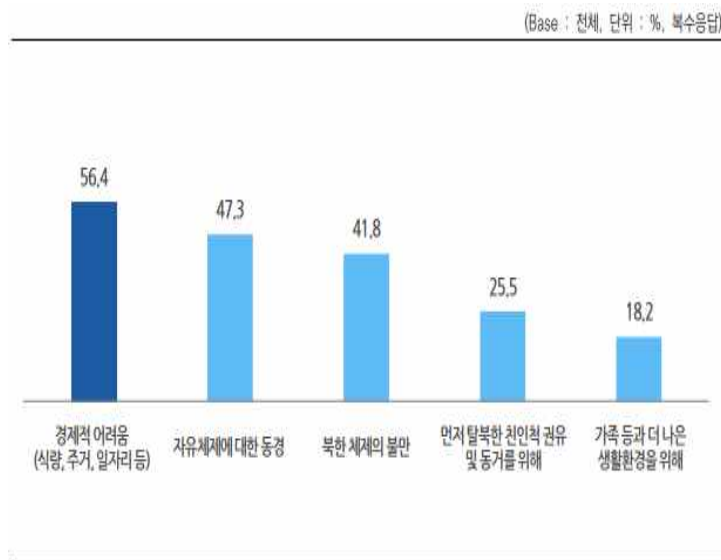
〈표 8〉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1	20.0	함께 거주 중인 가족	배우자	13	65.0
	여성	44	80.0		자녀	12	60.0
연령	20대	10	18.2	취업 상태	부모님/조부모님	3	15.0
	30대	15	27.3		기타	1	5.0
	40대	11	20.0		임금근로자	21	38.2
	50대	14	25.5	무직	22	40.0	
	60대 이상	5	9.1	주부	10	18.2	
남한 거주기간	3년 미만	38	69.1	올해 (2021년) 월 수입	기타	2	3.6
	3년 이상~5년 미만	7	12.7		월 99만원 이하	36	65.5
	5년 이상	10	18.2		월 100만원 이상~199만원	11	20.0
가족과 함께 거주 여부	그렇다	20	36.4		월 200만원 이상	8	14.5
	아니다	35	63.6	표본	전체 사례 수(N)	55	100

○ 남한 정착 과정 기술통계분석 결과

- 탈북을 결심하게 된 주된 동기로는 ‘경제적 어려움(56.4%)’ 이 가장 가장 큰 이유였으며,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47.3%)’, ‘북한 체제의 불만(41.8%)’ 역시 탈북 동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1+2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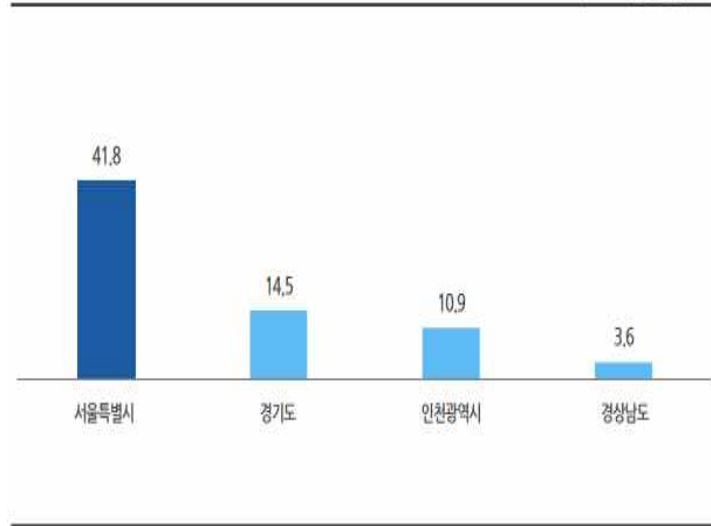
<그림 5> 탈북을 결심하게 된 주된 동기



- 국내 입국 당시(거주지 배경 전) 거주하고 싶었던 지역의 경우, 남한 입국 당시에는 ‘서울(41.8%)’, ‘경기도(14.5%)’, ‘인천광역시(10.9%)’ 등 수도권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역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1.8%에 해당함

<그림 6>탈북을 결심하게 된 주된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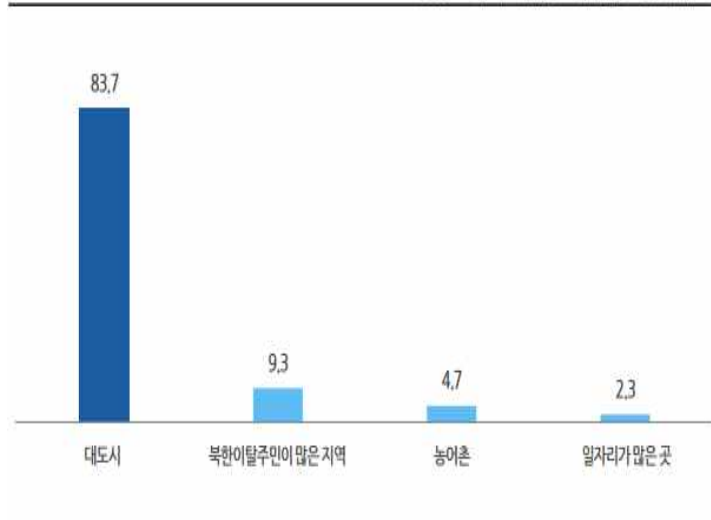
(Base : 전체, 단위 : %)



- 국내 입국 당시(거주지 배정 전) 거주하고 싶었던 지역의 형태는 대부분 ‘대도시 (83.7%)’ 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지역(9.3%)’, ‘농어촌(4.7%)’ 으로 측정됨

<그림 7> 국내 입국 당시(거주지 배정 전) 거주하고 싶었던 지역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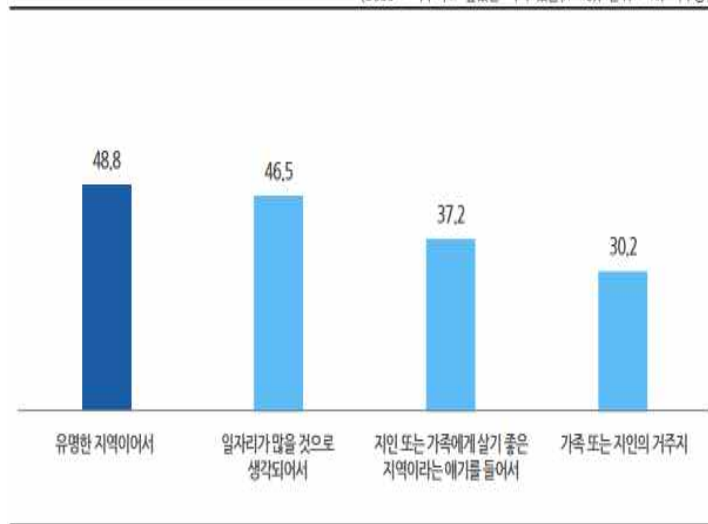
(Base : 거주하고 싶었던 지역 있음(n=43), 단위 : %)



- 해당 주거지를 희망하였던 이유 중 주된 요인으로는 ‘유명한 지역이어서(48.8%)’ 였 으며, ‘일자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46.5%)’, ‘지인 또는 가족에게 살기 좋 은 지역이라는 얘기를 들어서(37.2%)’ 등의 순서로 측정

<그림 8> 해당 주거지를 희망하였던 이유 중 주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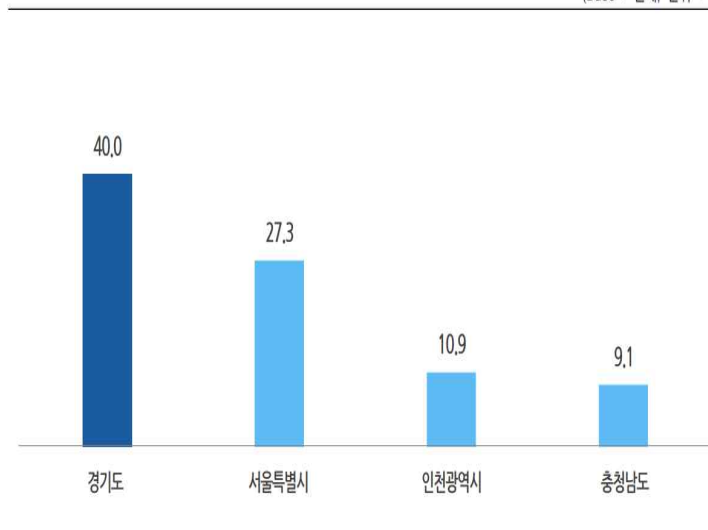
(Base : 거주하고 싶었던 지역 있음(n=43), 단위 : %, 복수응답)



- 실제 거주한 지역 및 이사 경험에 있어 하나원 퇴소 이후 최초로 거주한 지역은 ‘경기도(40%)’에 가장 많이 배정 받았으며, ‘서울특별시(27.3%)’, ‘인천광역시(10.9%)’ 순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음. 또한, 모든 응답자가 ‘하나원에서 배정 받은 집 또는 임대아파트에 처음 거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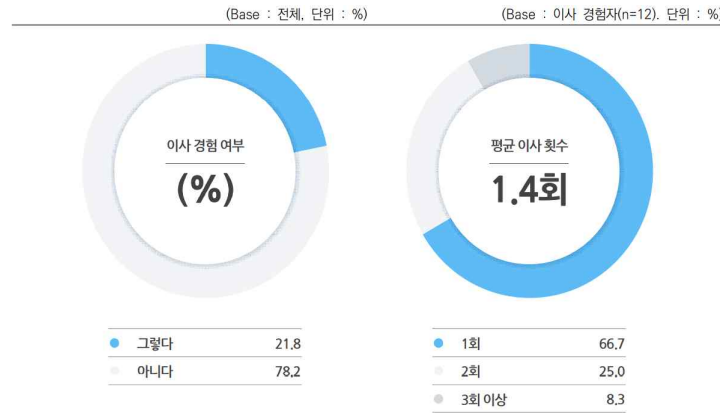
<그림 9> 하나원 퇴소 후 최초로 거주한 지역(상위 4개)

(Base : 전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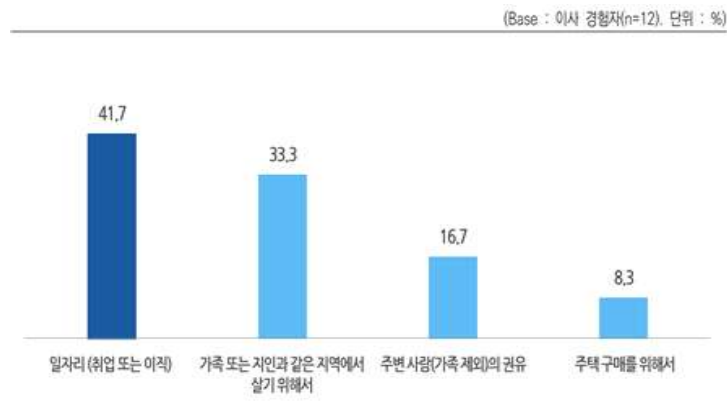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의 21.8%가 하나원 퇴소 이후로 배정 받았던 거주지 외 이사 경험이 있었음. 이사 경험자 중 66.7%가 1회 이사했으며, 평균 이사 횟수는 1.4회임

<그림 10> 최초 거주지 외 이사 경험 여부 및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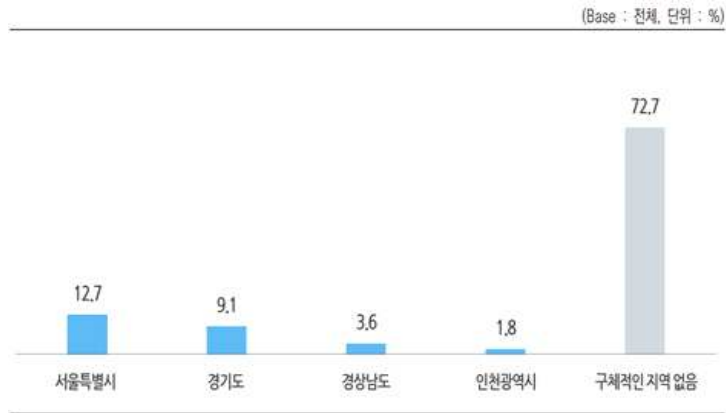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이 이사를 했던 이유로는 ‘일자리(취업 또는 이직: 41.7%)’ 때문인 경우가 많으며, ‘가족 또는 지인과 같은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33.3%)’, ‘주변 사람(가족 제외)의 권유(16.7%)’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사한 곳의 거주 환경은 66.7%가 본인 소유의 집 또는 임대 주거공간으로 조사됨

<그림 11> 이사를 했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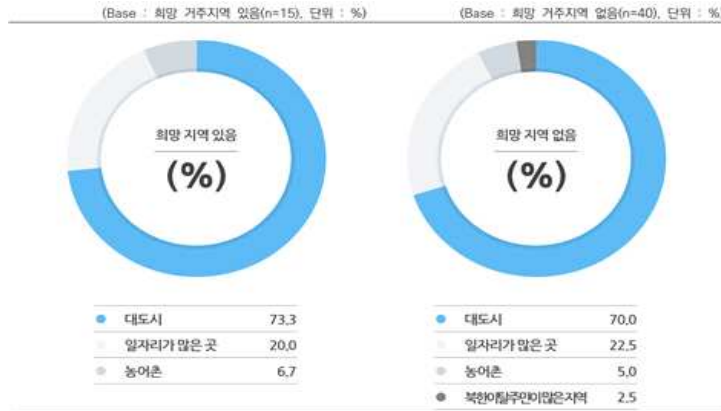
- 향후 거주하고 싶은 지역을 측정한 설문결과에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향후 거주를 희망하는 구체적인 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72.7%), 구체적인 지역이 있는 경우로는 ‘서울특별시(12.7%)’, ‘경기도(9.1%)’ 등이 나타남

<그림 12> 향후 거주하고 싶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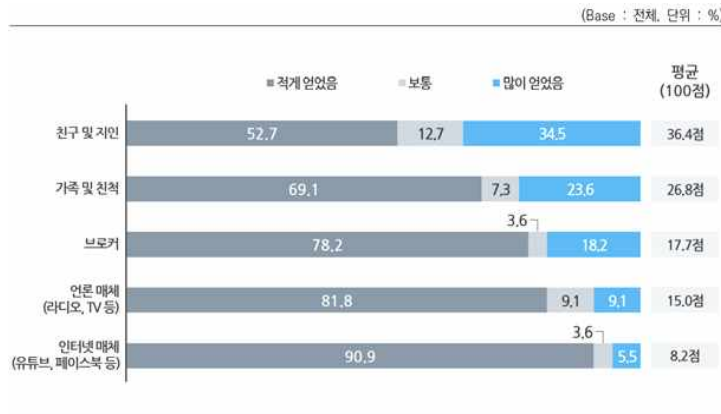
- 희망 지역이 있던 응답자들의 경우 '대도시' (73.3%)를 향후 거주하고 싶은 지역으로 선택하였으며, 희망 지역이 없었던 응답자들 역시 '대도시(70.0%)'를 선호하고 있음
- 즉, 향후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 유무와 관계없이,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그림 13〉 향후 희망 거주지역 유형



- 남한에 입국 전 정착 관련 정보 입수 경로를 측정해본 결과 남한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짐. 특히, ‘인터넷 매체(유튜브, 페이스북 등: 5.5%)’, ‘언론 매체(라디오, TV 등: 9.1%)’ 를 통해 정보를 다수 얻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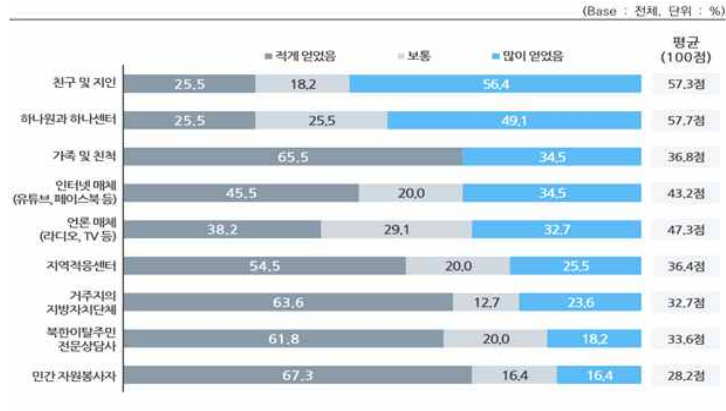
〈그림 14〉 남한 입국 전, 남한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은 정도



- 남한에 입국 후 정착 관련 정보 입수 경로를 조사한 결과 남한에 입국한 후에는 주로 ‘친구 및 지인’ (56.4%), ‘하나원과 하나센터’ (49.1%) 등을 통해서 남한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를 다수 얻었던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민간 자원봉사자’ (16.4%),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18.2%) 등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다수 얻었던 경우는 적었음
- 그 외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 (23.6%), ‘지역적응센터’ (25.5%)를 통해서도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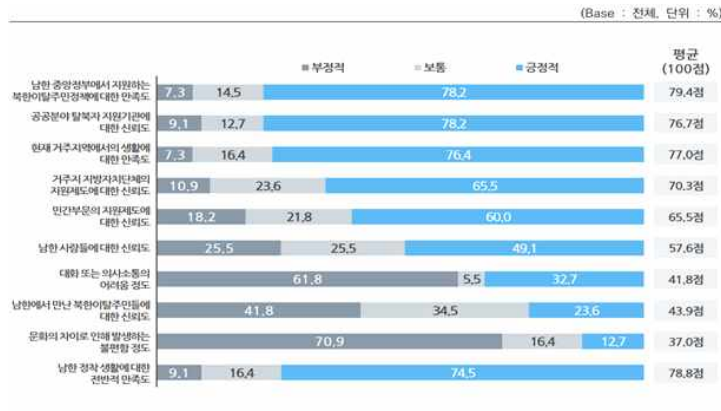
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정보 제공 기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림 15> 남한 입국 후, 남한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은 정도



- 남한 정착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남한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정책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고(긍정적 78.2%), ‘공공분야 탈북자 지원기관(통일부, 교육부, 경찰청)’에 대해 높은 신뢰(긍정적 78.2%)를 보여주고 있음
- 반면에, 문화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부정적 70.9%)과 대화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어려움(부정적 61.8%)을 크게 느끼고 있음
- 남한 정착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긍정적 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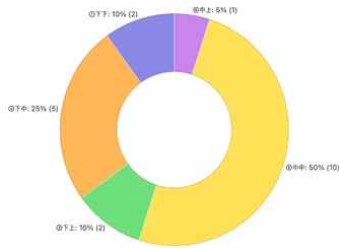
<그림 16> 남한 정착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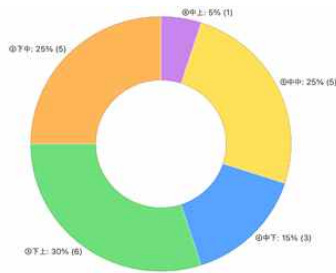
2. 다차원 분석

□ 요인별 분석결과

<그림 17>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상기조건 시)



<그림 18>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상기조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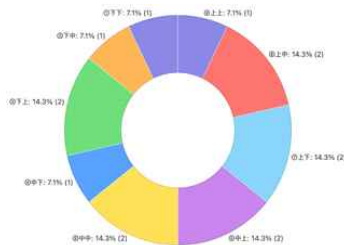


<그림 19>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정도(상기조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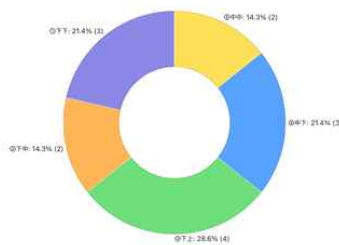


- 다음 조건인 탈북 동기(이념적 불만) * 현 거주지 만족 *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남한) *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 정도를 걸고 요인 분석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됨
-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이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인식과 유사한 비율 형태(다만 중간 수준으로 수렴). 전반적으로는 상승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함에 있어 엄격하게 보는 경향
- 탈북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인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개선인식이 저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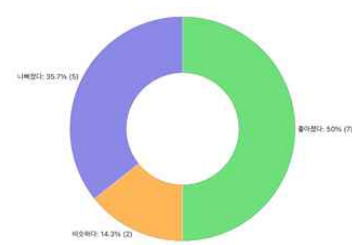
<그림 20>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상기조건 시)



<그림 21>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상기조건 시)



<그림 22>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정도(상기조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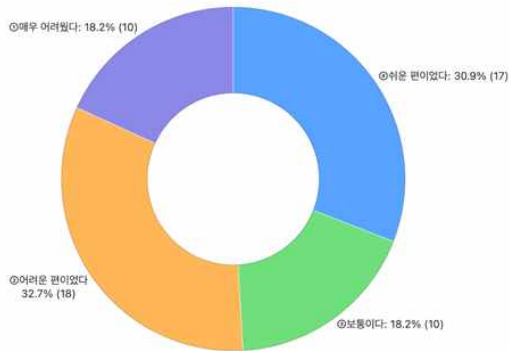


○ 탈북 동기와 정보획득/의사소통/문화불편 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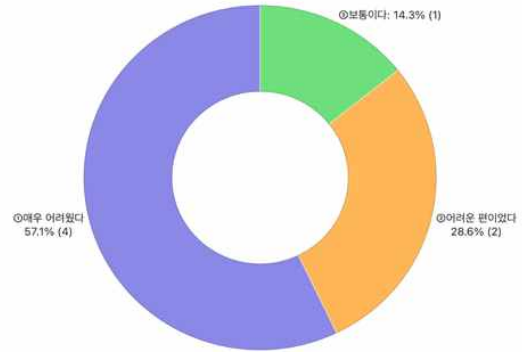
- 다음 조건인 탈북 동기(경제적 어려움) * 현 거주지 불만족 * 정보획득 어려움 정도(남한)를 걸고 요인 분석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됨

- 탈북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이었고, 현 거주지에 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응답자는 정보획득의 어려움(86%)이 전체(51%)와 비교하여 더 크게 나타남
- 정보획득을 위한 노력 정도 역시 전체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23> 정보획득 어려움(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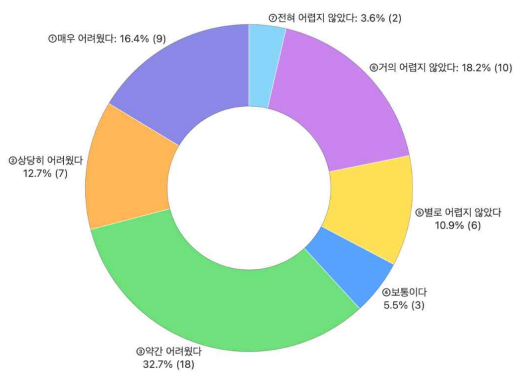


<그림 24> 정보획득 어려움(상기 조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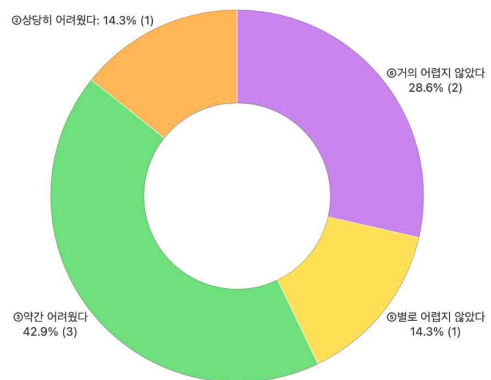


- 다음 조건인 탈북 동기(경제적 어려움) * 현 거주지 불만족 * 의사소통 어려움(남한)을 걸고 요인 분석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됨
-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는 전체 응답자 대비 큰 비율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5> 의사소통(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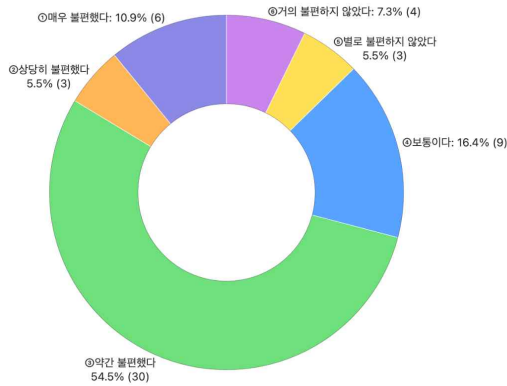


<그림 26> 의사소통(상기 조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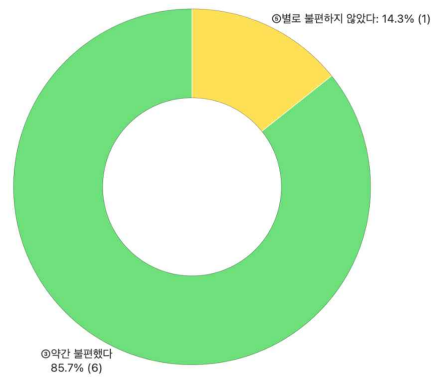


- 다음 조건인 탈북 동기(경제적 어려움) * 현 거주지 불만족 * 문화불편(남한)을 걸고 요인 분석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됨
- 문화불편 정도는 전체 응답자 대비 불편한 정보가 증가함

<그림 27> 문화불편(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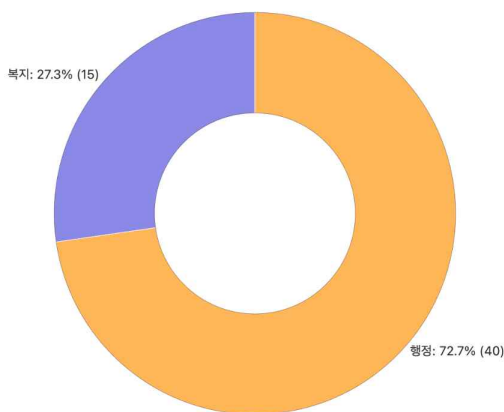
<그림 28> 문화불편(상기 조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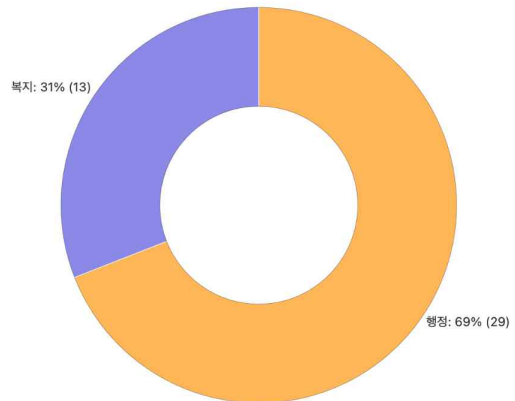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담당 기관의 명칭에 따른 만족 정도

- 다음 조건인 현 거주지 만족 * 자치단체별 지원 특성 분류(2단계 분류: 행정, 복지)를 걸고 요인 분석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됨
- 현 거주지 만족자는 ‘행정’ 대비 ‘복지’ 비율이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며, 반대의 경우(현 거주지 불만족자) ‘행정’ 대비 ‘복지’ 비율이 미세하게 감소 됨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9> 자치단체별 지원 특성 분류(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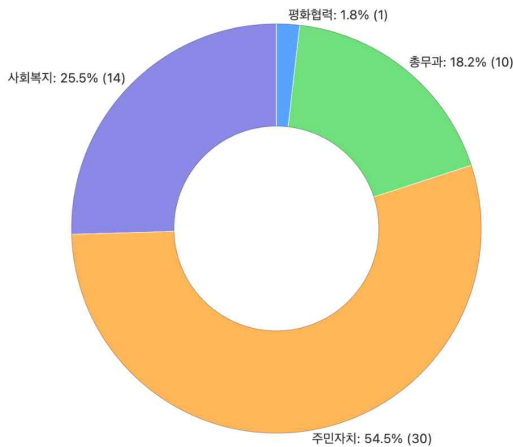
<그림 30> 자치단체별 지원 특성 분류(상기 조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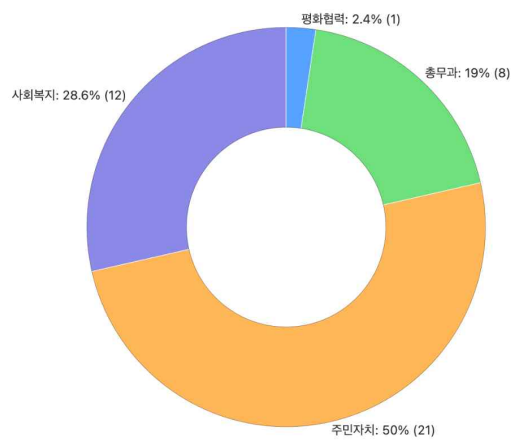
- 다음 조건인 현 거주지 만족 * 자치단체별 지원 특성 분류(4단계 분류: 주민자치, 사회복지, 평화협력, 총무과)를 걸고 요인 분석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됨

- 현 거주지 만족자는 ‘주민차지’ 대비 ‘사회복지’ 비율이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며, 반대의 경우(현 거주지 불만족자) ‘주민차지’ 대비 ‘사회복지’ 비율이 미세하게 감소 됨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1〉 자치단체별 지원 4단계 특성
분류(전체)



〈그림 32〉 자치단체별 지원 4단계 특성
분류(상기 조건 시)



○ 요인 별 분석결과 요약 및 해석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탈북한 이들은 대체로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 이 하인 경우가 전체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이념적 동기(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탈북한 이들은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각 단계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된 정도를 볼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탈북한 이 들은 대체로 한 단계 이상 상승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하 단계의 비율이 감 소). 그러나 이념적 동기(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탈북한 이들은 여전히 각 단계 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하 단계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상 단계의 비율이 감소)
- 상기 집단은 현 주거지에 만족하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임. 즉, 경제적인 동 기가 강하였던 이들은 현 주거지에 만족하는 정도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사 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에 이념적 동기가 강하였던 이들은 현 주거 지에 만족하더라도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이와 강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인 식함을 알 수 있음

- 현 주거지에 만족한 집단의 경우는 탈북동기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획득, 의사소통, 문화불편 정도가 모두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이에 본 분석은 현 주거지에 불만족하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음
- 현 주거지에 불만족하고 있는 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념적 동기에 의해 탈북한 이들은 응답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함
- 결국, 경제적 동기에 의해 탈북한 이들은 정보획득의 어려움(86%)이 전체(현 주거지 만족 변수 조건 없을 때; 51%)와 비교하여 더 크게 나타남. 그리고 정보획득을 위한 노력 정도(노력함 57%)도 전체(71%)와 비교하여 더 낮게 나타남
- 따라서 이는 경제적 동기가 강하였던 이들은 정보획득을 어렵게 느끼고, 획득노력도 미진한 경우에 현 주거지에 대한 불만족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는 전체 응답자 대비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 않음
- 그러나 문화불편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 대비 불편하였다는 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즉, 탈북한 이들의 경우 정보를 얻는 정도가 현 주거지에 대한 만족 정도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보다는 문화적 불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 거주지역의 담당기관 명칭을 기준으로, 현 주거지에 대한 만족 정도를 분석함
- 담당기관 명칭이 복지인 경우 만족하는 비율이 증가함. 이는 사회복지인 경우 같은 경향임
- 담당기관 명칭이 행정인 경우 불만족(보통 이하)의 비율이 증가함. 이는 주민자치인 경우 같은 경향임
- 결국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담당기관 명칭이 복지와 관련된 경우가 만족도 증가와 비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음

3. 이사 유무에 따른 분석

□ 이사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사례분석

○ 최초 거주지 외 이사 경험 여부와 남한 거주기간(3년 기준)의 관계

- 최초 거주지 외 이사경험 여부와 남한 거주기간(3년 기준) 간의 독립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Chi2 test를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Chi2는 26.73이며 P-value 값은 0.000으로 5% 유의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이사 경험 여부와 3년 기준 남한 거주기간 간의 관계는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9〉 최초 거주지 외 이사경험 여부와 남한 거주기간(3년 기준) 간 독립성 검증 결과

남한 거주기간	하나원 퇴소 후 이사 여부		Total
	이사 안함	이사	
3년 미만	37	1	38
3년 이상	6	11	17
Total	43	12	55

Pearson $\chi^2(1) = 26.73$ Pr= 0.000

○ 최초 거주지 외 이사 경험 여부와 가족과 함께 거주 여부

- 최초 거주지 외 이사 경험 여부와 가족과 함께 거주 여부 간의 독립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Chi2 test를 실행하였음
- Chi2는 9.90이며 P-value 값은 0.002로 5% 유의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와 지역 이사 간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0〉 최초 거주지 외 이사경험 여부와 가족과 함께 거주 여부 간 독립성 검증 결과

남한 거주기간	하나원 퇴소 후 이사 여부		Total
	이사 안함	이사	

그렇다	11	9	20
아니다	32	3	35
Total	43	12	55

Pearson $\chi^2(1) = 9.90$ Pr= 0.002

○ 최초 거주지 외 이사 경험 여부와 가족과 함께 거주 여부(세부적 내용)

- 이사 경험 여부와 구체화 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Chi2 test를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부부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이사경험 여부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부모 또는 형제와 함께 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사경험 여부와 관계가 없었음을 확인함

<표 11> 최초 거주지 외 이사경험 여부와 가족과 함께 거주 여부(세분화) 간 독립성 검증 결과

부부 (Spouse)	하나원 퇴소 후 이사 여부		Total	자녀 (Children)	하나원 퇴소 후 이사 여부		Total
	이사 안함	이사			이사 안함	이사	
그렇다	6	7	42	그렇다	4	8	12
아니다	37	5	13	아니다	39	4	43
Total	43	12	55	Total	43	12	55
Pearson $\chi^2(1) = 10.24$ Pr= 0.001				Pearson $\chi^2(1) = 18.10$ Pr= 0.000			
부모 (Parents)	하나원 퇴소 후 이사 여부		Total	형제 (Siblings)	하나원 퇴소 후 이사 여부		Total
	이사 안함	이사			이사 안함	이사	
그렇다	2	1	13	그렇다	1	0	1
아니다	41	11	42	아니다	42	12	54
Total	43	12	55	Total	43	12	55
Pearson $\chi^2(1) = 0.25$ Pr= 0.619				Pearson $\chi^2(1) = 0.28$ Pr= 0.594			

○ 분석결과: 이사 여부에 따른 가족과 함께 거주 여부 및 남한 거주기간 간의 관계(로짓분석)

- 앞서 Chi2 test를 통해서 하나원 퇴소 이후 이사 여부는 남한 거주기간과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함

-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나이, 월 소득, 남한정착생활 만족도), 정보획득에 관한 변수(공식적 매체 정보취득, 비공식 매체 정보취득), 남한사람 신뢰 변수를 통제변수로 두고 이사 여부와 가족과 함께 거주 여부 및 남한 거주기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로짓회귀분석(Logit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함
- 인구통계학적 요인만을 통제하였을 때(M1) 이사 여부와 가족 유무 간의 관계는 승산비 1 이상으로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함. 즉, 가족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이사회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에 비해 약 17배 정도 높음. 그러나 설정한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는 방향성은 변화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 남한 거주기간과 이사 여부 간 관계에 있어, 설정한 모든 모형(M1, M2, M3)에서 승산비 1 이상으로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을 확인함. 특히 모형이 정교화될수록 승산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2〉 이사 여부와 가족과의 거주 유무 및 남한 거주기간 간의 관계

이사 여부	M1		M2		M3	
	승산비	유의확률	승산비	유의확률	승산비	유의확률
가족 有	17.029	0.045	31.082	0.090	43.709	0.108
남한 거주기간 (기준: 3년 미만)	119.736	0.002	336.526	0.017	504.410	0.021
성별 (기준: 여성)	0.390	0.685	0.225	0.536	0.135	0.465
나이	0.967	0.552	0.939	0.407	0.961	0.601
월 소득	1.230	0.811	1.219	0.847	1.529	0.739
남한정착생활 만족도	1.392	0.459	1.922	0.320	1.468	0.599
공식적 매체 정보취득			0.449	0.416	0.361	0.352
비공식적 매체 정보취득			3.203	0.273	3.105	0.304
남한사람 신뢰					1.761	0.373
상수	0.002	0.044	0.001	0.044	0.000	0.054
	N=55 Log likelihood = -11.420 LR chi2(6) = 34.87 Prob > chi2 = 0.000		N=55 Log likelihood = -10.607 LR chi2(8) = 36.49 Prob > chi2 = 0.000		N=55 Log likelihood = -10.175 LR chi2(9) = 37.36 Prob > chi2 = 0.000	

-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거주 유무와 이사 여부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승산비가 1 이상이어서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함

〈표 13〉 이사 여부와 배우자와 거주 유무 및 남한 거주기간 간의 관계

이사 여부	M1		M2		M3	
	승산비	유의확률	승산비	유의확률	승산비	유의확률
부부	8.795	0.089	6.341	0.170	13.975	0.130
남한 거주기간 (기준: 3년 미만)	95.646	0.001	130.794	0.003	216.474	0.006
성별 (기준: 여성)	0.348	0.603	0.317	0.574	0.197	0.419
나이	0.985	0.771	0.980	0.719	1.002	0.978
월 소득	1.103	0.893	1.052	0.946	1.087	0.924
남한정착생활 만족도	1.359	0.466	1.729	0.335	1.076	0.914
공식적 매체 정보취득			0.547	0.484	0.498	0.416
비공식적 매체 정보취득			1.603	0.559	1.448	0.648
남한사람 신뢰					2.243	0.241
상수	0.004	0.054	0.001	0.062	0.000	0.041
	N=55 Log likelihood = -12.614 LR chi2(6) = 32.48 Prob > chi2 = 0.000		N=55 Log likelihood = -12.344 LR chi2(8) = 33.02 Prob > chi2 = 0.001		N=55 Log likelihood = -11.518 LR chi2(9) = 34.67 Prob > chi2 = 0.001	

〈표 14〉 이사 여부와 자녀와 거주 유무 및 남한 거주기간 간의 관계

이사 여부	M1		M2		M3	
	승산비	유의확률	승산비	유의확률	승산비	유의확률
자녀	2.360	0.998	4.870	0.996	5.440	0.996
남한 거주기간 (기준: 3년 미만)	7.050	0.998	1.320	0.996	1.880	0.995
성별 (기준: 여성)	2.232	0.760	0.227	0.647	0.186	0.617
나이	0.998	0.983	1.008	0.927	1.022	0.842
월 소득	0.734	0.806	2.043	0.682	2.310	0.649
남한정착생활 만족도	1.672	0.365	2.596	0.246	2.377	0.343
공식적 매체 정보취득			0.229	0.256	0.195	0.283
비공식적 매체 정보취득			2.176	0.453	2.075	0.503
남한사람 신뢰					1.242	0.807
상수	8.520	0.998	2.450	0.995	9.350	0.994
	N=55 Log likelihood = -8.380 LR chi2(6) = 40.94 Prob > chi2 = 0.000		N=55 Log likelihood = -7.451 LR chi2(8) = 42.80 Prob > chi2 = 0.000		N=55 Log likelihood = -7.421 LR chi2(9) = 42.86 Prob > chi2 = 0.000	

4.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따른 거주만족도 분석

〈표 15〉 모형 분석 결과표

독립변수	남한정착생활 만족도		거주지역 만족도		중앙정부 지원정책 만족도	
	회귀계수	유의확률	회귀계수	유의확률	회귀계수	유의확률
복지전담부서 여부	1.128	0.013	0.975	0.016	-0.045	0.933
성별	0.276	0.584	0.338	0.452	0.233	0.702
연령	0.062	0.000	0.054	0.001	0.027	0.179
남한거주 3년이상 여부	-0.383	0.408	-0.713	0.088	-0.267	0.634
중졸	0.4	0.828	3.099	0.064	2.24	0.319
고졸	-1.025	0.445	2.028	0.094	1.21	0.457
전문대졸	-2.497	0.09	0.405	0.753	1.056	0.548
대졸	-2.445	0.098	0.443	0.732	-0.128	0.942
월급여	0.304	0.653	-0.137	0.82	0.434	0.598
정규직	0.813	0.098	0.988	0.026	0.388	0.51
비정규직	-0.08	0.855	-0.389	0.32	0.177	0.739
가족동거여부	1.148	0.007	0.603	0.1	0	1
상수	3.479	0.013	1.215	0.314	3.403	0.042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 전담부서를 행정(총무과, 주민자치, 자치분권 등)부서와 복지(주민복지, 다문화 등)부서에 따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복지전담부서가 남한생활 만족도와 거주지역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제도에 만족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중앙정부(통일부, 하나원, 하나센터 등)의 지원제도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거주지 배정전에 동일한 지원정책을 제공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을 감시의 대상으로 보느냐 또는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 보느냐에 시각으로 볼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것을 행정용어로 '거주지 보호담당' 이라고함
-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을 '관리의 대상' 또는 '서비스의 대상' 으로인식하

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행정직 공무원은 복지서비스에 대해 복지담당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정책이 적기 때문에 북한이탈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책지원에 차이가 발생하여 이같은 분석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담당공무원을 직접 면담하여 연구결과를 확인이 필요함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연구의 결론

○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관점은 1990년대 귀순의 개념에서, 2000년대 취업, 교육 등 거주 실태조사 실시 및 주민의 개념으로 확장되었으나,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며 일반 국민들과 비교하여 아직까지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음

- 국내 입국 후 중앙정부에서 제공받는 관리 및 교육기간은 동일하나, 하나원 퇴소 후 실질적으로 거주 및 생활의 기반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정부-지자체-민간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나 실질적인 상호 협력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행정당국의 시각은 복지의 개념이 아닌 ‘거주지보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국내 입국 시 대도시를 희망하고 있었고, 대도시를 희망한 이유가 유명한 지역, 일자리, 지인에게 좋은 지역이라는 얘기를 들어 서로 국내 지역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태로 입국하고 있었음

- 특히 남한 입국 전 남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 하나원 퇴소 후 최초로 거주한 지역은 경기도가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순으로 나타남
- 남한 입국 후 남한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는 창구는 친구 및 지인, 하나원과 하나센터로 한정되어 있어 남한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남한 정착생활 만족도는 중앙정부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79.4점으로 나타나 매우 높게 나타남

- 그러나 남한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는 57.6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도는 43.9점으로 나타나 낮게 측정됨

- 대화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41.8점으로 상대적으로 없으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편함이 느끼는 정도가 70%가 넘게 나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남한 정착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78.8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북한이탈 후 생활 변화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나원 퇴소 이후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는 55명 중 12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음

- 이사를 한 사람들의 공통점 내지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국내 입국 후 3년이 경과한 사람들임

- 즉 가족화 함께 거주하며 국내에 적응하고 많은 정보를 취득한 사람일수록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지 선정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거주 만족도, 이사결정요인, 공식 및 비공식적 정보습득,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정책 만족도 및 신뢰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 연구모형으로 종속변수로는 이사 여부, 독립변수로는 가족과 거주 여부, 남한 거주기간, 통제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나이, 월소득, 남한정착생활 만족도), 정보취득 정도, 남한사람에 대한 신뢰로 구성하였음

-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거주지의 중요성을 인식한 최초의 연구로 의의가 있음

- 일반적으로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연구가 취업, 국내 정치적 만족도, 생활만족도 등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음

2.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 1980년대 ‘김만철 일가’ 귀순 이후 민간인 귀순자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귀순용사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북한의 배급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북한이탈주민이 90년대 폭증하면서 우리 사회도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과 관리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이제는 초기 입국지원 시스템이 정착되었으나 북한이탈주민을 보는 일선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북한이탈주민을 ‘거주지보호’ 관점에서 탈피해 ‘주거복지’ 또는 ‘생애복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임
- 지방자치단체별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법적으로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개념을 숨기고, 신변이 공개되면 안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제는 이러한 비밀주의, 보호주의를 탈피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개념을 폐지하고 ‘복지’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거주지신변보호’는 경찰에서 전담하고, 주민생활 및 복지담당부서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게 하여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자치단체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 시 파격적인 지원금과 혜택을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게다가 일부에서는 국가적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외 이민자의 적극적 수용도 주장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은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적 불편이 없고, 문화적으로도 적응하기 쉬운 부분이 존재함

-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가 얻을 수 있는 경로가 한정되어 있어서 단순히 대도시로의 주거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증가를 얻고, 북한이탈주민입장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의 이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이탈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임
- 본 연구는 코로나19 및 하나원 교육대상자가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대면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음
-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정책당국 및 일선행정관료들과의 논의를 통해 검증해야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임

< 참고문헌 >

임정빈.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 분석. 한국정책연구, 12(2), 249-272.

이기영 외, 「이주민 정책과 서비스」, 서울: 나눔의 집. pp316~317.

이시형. (200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오토피아, 23(1), 187-222.

충청남도. (2018).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 수립 연구. (사)한국가족문화원

통일부. (2020). 2020 북한이탈주민 실무편람

통일부. (2020). 통일백서

통일부 홈페이지, 주요사업통계.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BBC News 코리아, 2022. 01. 04. 월북: 10년간 최소 30명 월북... 탈북민들 국경 두 번 넘는 이유는,
조선일보, 2021. 11.27. 정부 무관심속에, 탈북민 고독사 4배 급증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지 선정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

본 조사는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지 선정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향후 북한이탈주민 정주 여건 관련 정책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관 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실사 수행	(주) 글로벌리서치 최00 부장 (02-XXXX-XXXX) 지00 차장 (02-XXXX-XXXX)
-------	---------------	-------	--

SQ. 응답자 특성

SQ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SQ2 선생님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SQ3 선생님께서 가장 최근 탈북하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SQ4 선생님께서 가장 최근에 남한에 입국하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SQ5 선생님께서 남한에 거주하신 총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SQ6 선생님은 현재 남한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SQ6-1 →A1

(SQ6=1)

SQ6-1 현재 선생님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님
- 4) 형제 5) 친척 6) 조부모님
- 7) 기타 (_____)

A. 남한 정착 과정

A1 선생님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 주된 동기는 아래 내용 중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그 다음 이유를 선택해주세요.

※ 여러 번 탈북하신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탈북하셨을 때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 |
|---------------------------|---------------------------|
| 1) 경제적 어려움(식량, 주거, 일자리 등) | 2) 북한 체제의 불만 |
| 3)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 | 4) 먼저 탈북한 친인척 권유 및 동거를 위해 |
| 5) 시장경제체제에서 성공을 위하여 | 6) 가족 등과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위해 |
| 7) 기타 (_____) | |

A2 선생님께서 국내 입국 시(거주지 배정 전) 한국에서 거주하고 싶었던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 | | | | |
|-------------|--------------|----------|------------|
| 1) 서울특별시 | 2) 부산광역시 | 3) 대구광역시 | 4) 인천광역시 |
| 5) 광주광역시 | 6) 대전광역시 | 7) 울산광역시 | 8) 세종특별자치시 |
| 9) 경기도 | 10) 강원도 | 11) 충청북도 | 12) 충청남도 |
| 13) 전라북도 | 14) 전라남도 | 15) 경상북도 | 16) 경상남도 |
| 17) 제주특별자치도 | 18) 없었다→A2-2 | | |

A2-1. 국내 입국 시 거주하고 싶었던 지역(A2 응답)은 다음 중 어떤 곳입니까? (단수)

- 1) 대도시
- 2) 농어촌
- 3)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지역
- 4) 북한접경지역
- 5) 일자리가 많은 곳
- 6) 기타(_____)

A2-2. 선생님께서 위의 문항(A2)에서 응답한 주거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1) 지인 또는 가족에게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 2) 유명한 지역이어서
- 3) 가족 또는 지인의 거주지
- 4) 일자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 5)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 6) 하나원 또는 하나센터 직원의 권유
- 7) 지방자치단체 소개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 8) 기타(_____)

(A4=1)

A5 지금부터는 선생님께서 남한에서 이사 및 거주한 적이 있는 지역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응답해주시시오. 단, 마지막으로 이사한 지역은 현재 거주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총 4번 이상 이사를 하셨을 경우에는, 초기 두 번째 지역과 현재 거주지를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 사례 1 : 하나원 퇴소 후 배정받은 거주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로 이사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 첫 번째 이사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 사례 2 : 하나원 퇴소 후 배정받은 거주지에서, 경상북도 상주시로 이사했다.
그 뒤 경기도 성남시로 이사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 첫 번째 이사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 두 번째 이사 지역 [경기도] [성남시]

● 각 이사 지역별로 지역 선택 이유 및 거주환경 별도 문항으로 조사

구분	1) 광역/특별	2) 기초	A5-1. 선택 이유	A5-2. 거주 환경
1. 첫 번째 이사 지역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2. 두 번째 이사 지역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3. 세 번째 이사 지역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A4=1)

A5-1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거주지로 이사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 1) 일자리 (취업 또는 이직)
- 2) 주변 사람(가족 제외)의 권유
- 3) 타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 4) 교육환경
- 5) 가족 또는 지인과 같은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 6) 주택 구매를 위해서
- 7) 현재 지역의 거주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8) 기타 (_____)

(A4=1)

A5-2 선생님께서 이사한 곳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단수)

- 1) 하나원에서 배정받은 집 또는 임대아파트
- 2) 본인 소유의 집 또는 임대 주거공간
- 3) 가족 또는 친척의 집
- 4) 친구 또는 지인의 집
- 5) 무연고 시설, 그룹홈, 쉼터 등(주택 미배정자)
- 6) 일정한 거주지 없이(여관 등) 자주 옮겨 다님
- 7)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등
- 8) 기타 (_____)

A6 선생님께서 앞으로 거주하고 싶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1) 광역/특별	2) 기초	없음
(시,도)	(시,군,구)	9 →A6-3

A6-1 선생님께서 앞서 응답하신(A6) 거주하고 싶은 지역은 다음 중 어떤 곳입니까? (단수)

- 1) 대도시
- 2) 농어촌
- 3)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지역
- 4) 북한접경지역
- 5) 일자리가 많은 곳
- 6) 기타(_____)

A6-2 선생님께서 앞으로 거주하고 싶은 지역(A6 응답)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 1) 자가 소유의 집 구매
- 2) 주변사람들에게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 3) 언론 또는 미디어 매체에서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 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가 좋아서
- 5) 경제적 성공을 위하여
- 6)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싫어서
- 7) 기타(_____)

→응답 후 B1

(A6=9)

A6-3 향후 구체적인 거주희망 지역이 없다면, 다음 중 어떤 곳으로 이주하고 싶습니까? (단수)

- 1) 대도시
- 2) 농어촌
- 3)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지역
- 4) 북한접경지역
- 5) 일자리가 많은 곳
- 6) 기타(_____)

B. 남한 정착 관련 정보 입수 경로

B1 선생님께서서는 남한에 입국 전(북한 또는 제3국에서 살 때), 남한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전혀 얻지 못했다	그다지 얻지 못했다	보통	상당히 얻었 다	매우 많이 얻었다
1) 가족 및 친척	1	2	3	4	5
2) 친구 및 지인	1	2	3	4	5
3) 언론 매체 (라디오, TV 등)	1	2	3	4	5
4) 인터넷 매체 (유튜브, 페이스북 등)	1	2	3	4	5
5) 브로커	1	2	3	4	5

B2 선생님께서서는 남한에 입국하신 직후, 일상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매우 어려웠다	어려운 편이었다	보통이다	쉬운 편이었다	매우 쉬웠다
1	2	3	4	5

B3 선생님께서서는 남한에 입국하신 후, 남한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전혀 얻지 못했다	그다지 얻지 못했다	보통	상당히 얻었 다	매우 많이 얻었다
1) 가족 및 친척	1	2	3	4	5
2) 친구 및 지인	1	2	3	4	5
3) 언론 매체 (라디오, TV 등)	1	2	3	4	5
4) 인터넷 매체 (유튜브, 페이스북 등)	1	2	3	4	5
5) 하나원과 하나센터	1	2	3	4	5
6)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1	2	3	4	5
7) 민간 자원봉사자	1	2	3	4	5
8) 지역적응센터	1	2	3	4	5
9)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	1	2	3	4	5

B4 선생님께서서는 현재 남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 편입니까?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노력하고 있다	매우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C. 남한 정착 생활 만족도

C1 선생님께서는 남한 정착생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거의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만족한다	상당히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6	7

C2 선생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의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거의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만족한다	상당히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6	7

C3 남한에서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는 남한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신뢰한다	상당히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2	3	4	5	6	7

C4 선생님께서는 남한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신뢰한다	상당히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2	3	4	5	6	7

C5 선생님께서는 남한 중앙정부(통일부, 교육부 등)에서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정책(초기정착금,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거의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만족한다	상당히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6	7

C6 선생님께서는 남한에서 생활할 때, 각 분야에서 제공한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들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셨습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신뢰한다	상당히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2	3	4	5	6	7

C7 선생님께서는 남한의 공공분야 탈북자 지원기관(통일부, 교육부, 경찰청)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신뢰한다	상당히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2	3	4	5	6	7

C8 선생님께서는 남한의 민간부문(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원봉사자, 전문상담사 등)의 지원제도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신뢰한다	상당히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2	3	4	5	6	7

C9 선생님께서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대화 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매우 어려웠다	상당히 어려웠다	약간 어려웠다	보통이다	별로 어렵지 않았다	거의 어렵지 않았다	전혀 어렵지 않았다
1	2	3	4	5	6	7

C10 선생님께서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의 정도는 어땠습니까?

매우 불편했다	상당히 불편했다	약간 불편했다	보통이다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	거의 불편하지 않았다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1	2	3	4	5	6	7

DQ. 인구통계학적 특성

DQ1 선생님께서 북한에 있을 당시 가졌던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 1) 노동자, 봉사원 | 2) 농장원 | 3) 사무원 |
| 4) 장사 | 5) 전문가(교원, 의사, 기술자 등) | 6) 해외파견 일군 |
| 7) 주부 | 8) 학생 | 9) 무직 |
| 10) 기타 (_____) | | |

DQ2 선생님께서 북한에 있을 때, 가장 오래 거주하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 1) 평안남도 | 2) 평안북도 | 3) 자강도 | 4) 황해남도 | 5) 황해북도 |
| 6) 강원도 | 7) 함경남도 | 8) 함경북도 | 9) 량강도 | 10) 평양직할시 |
| 11) 라선특별시 | 12) 남포특별시 | 13) 개성특별시 | | |

DQ3 선생님의 북한에서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졸업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대학교 중퇴했을 경우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 | | | |
|-----------------|------------------|---------------|
| 1) 졸업한 적이 없음 | 2) 초등학교(소학교) | 3) 중학교(초급중학교) |
| 4) 고등학교(고급중학교) | 5) 전문대학교(고등전문학교) | 6) 대학교(종합대학) |
| 7) 대학원(연구원/준박사) | 8) 대학원(박사원) | 9) 기타 (_____) |

DQ4 그렇다면 남한에서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남한에서의 졸업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현재 대학생일 경우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 | | | |
|-----------------|------------------|----------------|
| 1) 남한에서 졸업하지 않음 | 2) 초등학교 | 3) 중학교 |
| 4) 고등학교 | 5) 전문대학교(4년제 미만) | 6) 대학교(4년제 이상) |
| 7) 대학원(석사) | 8) 대학원(박사) | 9) 기타 (_____) |

DQ5 선생님 개인이 2020년 한 해 동안 번 연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 (납세 이전 기준)
_____만원

DQ6 그렇다면 올해(2021년) 한 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 | | |
|---------------------|---------------------|
| 1) 월 99만원 이하 | 2) 월 100만원 이상~199만원 |
| 3) 월 200만원 이상~299만원 | 4) 월 300만원 이상~399만원 |
| 5) 월 400만원 이상~499만원 | 6) 월 500만원 이상 |

DQ7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선생님이 북한에 있을 때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				높다→				
下下	下中	下上	中下	中中	中上	上中	上上	
1	2	3	4	5	6	7	8	9

DQ8 그렇다면 선생님의 현재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낮다					높다→			
下下	下中	下上	中下	中中	中上	上下	上中	上上
1	2	3	4	5	6	7	8	9

DQ9 현재의 지위가 북한에 있을 때에 비해서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좋아졌다 2) 비슷하다 3) 나빠졌다

DQ10 선생님의 현재 취업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상용직 임금근로자(정규직) 2) 임시직 임금근로자(계약직)
 3) 일용직 임금근로자 4)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5) 고용주(자영업) 6) 무급가족종사자

응답자 정보

※ 성실하게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정보는 추후 사례 전달을 위해 여쭙는 내용이며, 이외 절대로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 조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